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박사학위 논문

고등학생 농구선수 중간관리자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김 태 훈

고등학생 농구선수 중간관리자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f Intermediate
Manager on Career Related Variables in High School
Students Basketball Players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김 태 훈

고등학생 농구선수 중간관리자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윤 오 남

이 논문을 이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김 태 훈

김태훈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전남대학교 교 수 김 동 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 경 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송 채 훈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서 영 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윤 오 남 (인)

2018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4
C. 연구가설	4
D.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7
A. 셀프리더십	7
1. 셀프리더십의 개념 및 정의	7
2. 셀프리더십의 이론적 근거	8
B. 진로관련변인	14
1. 진로장벽과 진로성숙	14
2. 진로활동과 진로성숙	18
III. 연구방법	21
A. 연구대상자	21
B. 조사도구	22
1.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	22
2. 진로관련변인	23

C. 연구절차	25
D. 조사도구의 타당도	27
1. 셀프리더십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27
2. 진로관련 변인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28
E. 자료처리	30
IV. 연구결과	31
A.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관련 변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31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31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	34
B.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관련 변인에 따른 상관관계	38
1. 셀프리더십, 진로관련변인(진로장벽, 진로성숙, 진로활동)의 상관관계	38
C.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41
1.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41
2.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활동에 미치는 영향	41
3.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42
V. 논의	43
VI. 결론 및 제언	46
참고문헌	48
부록(설문지)	57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표 2> 셀프리더십 구성내용 및 문항 수	22
<표 3> 진로장벽 구성내용 및 문항 수	23
<표 4> 진로활동 태도 및 인식 측정문항	24
<표 5> 진로성숙 구성내용 및 문항 수	25
<표 6> 셀프리더십의 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27
<표 7> 진로장벽에 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28
<표 8> 진로성숙에 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29
<표 9>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결과	31
<표 10> 운동기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결과	32
<표 11>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결과	33
<표 12> 성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 결과	34
<표 13> 운동기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 결과	35
<표 14> 학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 결과	37
<표 15>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38
<표 16> 진로장벽 상관관계	39
<표 17> 진로성숙 및 진로활동의 상관관계	40
<표 18> 셀프리더십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	41
<표 19> 셀프리더십이 진로활동에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	42
<표 20>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	42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절차26

ABSTRACT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f Intermediate manager on career related variables in high school students basketball players

Kim Tae-Hoon

Advisor : Yoon, Oh-nam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elf-leadership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allegiances is related to career barrier, career activity and career maturity.

In this study, we surveyed 300 elite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game as basketball player.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PSS 23.0 program.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mong factors. In order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factors,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an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leadership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claims for gender, exercise duration, and grade. The self-leadership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career barriers, career activities, and career maturity.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중간관리자는 조직의 구조상 전략적 정점과 운영 사이에 위치하는 직위를 점유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운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역할과 지위에 속하는 단계를 운동참여집단에서 “주장”이라는 입장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Minzberg, Henry, 1992).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선수가 중학교 선수보다 지도자의 행동제시행동 및 민주적 행동, 행동제시, 긍정적 보상 및 사회적 지지가 지도효율성 증진기능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반응이 적지 않음을 안내하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대체로 이러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원, 2009). 농구 경기의 특성으로 볼 때 고등학생 선수와 중학생 선수의 경기전술 방식에서 이해와 실제 경기 경험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리더십에 관한 초기의 연구사례들은 리더십을 지도자 개인의 특성적 개념이며 고정불변하고 선천적 개념으로 리더십을 정의하였으나 개인의 성격특성과 리더십의 상관성이 없음이 밝혀진 이후로 리더십 연구들은 리더십을 후천적이고 유동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남기덕, 2008).

셀프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과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으로서 목표에 대한 동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리더십과 동일하지만 리더의 주체가 지도자가 아닌 선수자신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이다(성호탁, 2014). 셀프리더십은 선수 자신 스스로가 자기관찰과 자기평가 및 자기비평의 인지전략을 통하여 목표에 대한 자기 동기화를 추구한다(Manz & Sims, 1984). 셀프리더십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목표에 대한 보상과 인식전환을 통해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셀프리더십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최성애, 2011). 그렇지만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지도자의 영향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지도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셀프리더십 형성이 선수 스스로에게 촉진 된다고 주장하였다(김용진, 2009). 다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기력에 따라 셀프리더십에 따른 영향이 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안내해주고 있다(성호탁, 2014). 셀프리더십은 지금까지의 스포츠 리더십의 영역에 대해 새로운 방향과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닌 같은 선수 입장의 중간관리자(주장)에 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 전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중 하나이다(이자형, 2015).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특정교과의 중요성만 강조되어 주요 교과목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토대로 대학 진학률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입시결과물위주의 교육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이승민, 2014).

이와 같이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신중하고 올바르게 결정되어야 하는 진로의 결정은 대학과 실업팀 또는 프로팀 등의 진로로서, 고교 운동선수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개인이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며 특히 고교 운동선수들에게 이러한 진로결정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이왕성, 2008).

체육교과에서의 자유학기제 도입은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관심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고민이 필요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체육교과에서 진로교육으로 실시해 왔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체육교과 운영은 진로교육이 중심에 서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체육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이화음, 2016). 신체적, 정신적 과도기에 들어서는 청소년기 학생선수들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적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당하거나 충분한 진로 지도 및 정책 지원이 없을 경우 진로발달과업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사회일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조규필 등, 2014). 그렇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시절 선수활동을 했던 대상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적 습득을 고루 갖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양구, 권형일, 2015). 대한체육회가 2010년 “학교 운동선수의 진로 및 직업 의식연구”를 조사할 당시에 선수들은 전공 또는 장래 직업의 선택에 관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보려 하지만 선수들이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계 진로선택을 망설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하듯 선수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학생선수로서의 진로만을 고려하고 있기에 운동선수로서의 중도탈락을 할 경우 큰 좌절감을 경험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재사회화 되지 못하고 도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생선수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적성이 우선되어지며 흥미가 함께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를 인지하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직업에 대한 흥미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어 진로발달과 진로탐색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양구, 권형일, 2015).

이러한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선행 연구 사례에 비추어 진로 장벽, 진로 활동 및 진로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해 하였으며, 진로성숙은 진로를 탐색, 계획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추구하기 위한 역량의 발달을 의미한다(노지혜, 2018). 진로장벽에 대해 여러 연구사례들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게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대체로는 개인의 선택이 바람직하게 가능해질 수 있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부정적 사건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해된다고 했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손은령, 2001). 진로장벽은 청소년의 진로포부 발달, 진로 선택 및 결정과 관련하여 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므로(손은령, 2001), 진로장벽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진로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의미 있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노지혜, 2018).

본 연구에서는 프로리그와 대학리그를 비롯한 진학 및 진로에 관한 고민과 두려움이 많은 고등학교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에서도 지도자의 영향이 아닌 선수와 지도자의 중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 고등학교 선수인 주장을 중간관리자로 정의하여 선수가 아닌 지도자의 입장으로 정의하여 이러한 선수지도자의 셀프리더십이 함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의 진로관련 변인들에 대해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의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함께 경기에 임하는 동료 및 또래 집단들의 진로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지도자를 비롯한 동료 선수들의 영향에 따른 선수들의 진로 선택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되어 지도 현장에서 대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 연구 가설

1.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관련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a)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은 성별, 운동기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b) 진로관련 변인(진로장벽, 진로성숙, 진로활동)은 성별, 운동기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관련 변인인 진로장벽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칠 것이다.

b)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관련 변인인 진로활동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칠 것이다.

c)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관련 변인인 진로성숙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칠 것이다.

D. 용어의 정의

1) 중간관리자 :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와 선수간의 관계에서 대표하는 중간 관계인 팀 경기에서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장이라는 표현이 아닌 중간관리자로 정의한다.

2) 셀프리더십 :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리더십은 목표설정, 자연적 보상, 성공수행 상상의 3가지 요인으로 셀프 리더십을 정의 하였다.

3) 진로관련 변인 : 본 연구에서는 진로관련 변인의 세부내용으로 진로장벽, 진로활동, 진로성숙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의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 셀프리더십

1. 셀프리더십의 개념 및 정의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의 개념은 임상심리학의 자기통제(self-control) 개념에 근간을 두고, Kerr와 Jermier(1978)의 리더십 대체개념 이후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개념으로 1980년대 중반에 Manz에 의해 주창되었다(Neck & Houghton, 2006).

셀프리더십이 탄생 된 배경으로는 1980년대 미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려 경기가 ‘신세대 노동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재조명되었다(정일재, 1997). 셀프리더십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신세대 중산층 근로자들의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이유가 권위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관리방식에 있음을 발견하고 신세대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개인적인 통제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셀프리더십을 제시하였다(Manz, 1986).

셀프리더십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기주도와 자기 동기 부여를 고양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Neck, Stewart & Manz, 1995)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셀프리더십 역시 다른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먼저 셀프리더십이란 자아 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며, 자기효능감을 위한 기술이고, 행동 통제의 기초이며, 자아완성의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Manz, 1986). 이러한 정의를 조금 더 확장시켜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한 내적 탐구과정이라고 하였다(Manz, Sims, 1989). 이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자아와 개인이 가장

비중을 두는 가치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Manz, Sims, 1989).

셀프리더십은 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일터에 적용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일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impowerment)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였다(Latham, 1982).

Sims와 Lorenzi(1992)는 진정한 리더란 부하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케 하고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조절 이론(Bandura, 1986)을 받아들여 자기 리더십, 초월적, 혹은 초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초’는 초월이란 의미로 ‘강한 리더’라는 의미가 아닌 부하들로 하여금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업무 추진을 하게 만들어 상사가 부하들에 대한 업무 관리를 초월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자기 리더십의 특징으로는 자기 목표설정, 자기관찰, 자기강화, 자기차별, 자기효능감 등이 있다(Sims, Lorenzi, 1992).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여 시도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김민정, 2007).

2. 셀프리더십의 이론적 근거

셀프리더십 전략은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3)과 내적동기화이론(Deci & Ryan, 1985)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하여 행동적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관찰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기통제, 자기관찰, 자기반성을 내면화하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다(Manz, 1986).

행동 중심적 전략이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고 그들이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여 성공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한 자기인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적 전략으로 자기관찰,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단서, 연습이 있다(Anderson & Prussia, 1997; Houghton & Neck, 2002).

(1) 사회학습 이론

신 행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Bandura는 조건형성과 인지이론을 통합하여 사회학습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조건형성이론은 요소적 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행동에 관해 잘 설명하고 있다(Bandura, 1986).

반면 인지이론은 사고나 문제해결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에 관한 학습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인간학습의 일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두 이론의 절충적 입장에서 탄생하게 개념이 사회적 학습이론이다(Bandura, 1986).

사회적 학습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 내에 내재하고 있는 일관적이고 안정된 특성들에 의해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처함 상황과 학습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는 이론이라 하며 자기 내부의요구와 인지적인 관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여긴다(Bandura, 1986).

Bandura는 인간의 모든 심리적 기능이 개인과 환경적 요인의 계속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을 때만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Bandura, 1986).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환경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선택된 환경이며, 이 환경은 사람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며 사람들이 학습하는 동기가 내적인힘에 의해서 혹은 환경적인 영향력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것을 통제하는 조건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Bandura, 1986).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때 불일치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고 있으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달성했다고 하여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설정

하여 행동하면서 자기 감독을 함으로써 행동이 통제 되는 것이다(Bandura, 1986).

Bandura(1977)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학습(모델링)과 사회적 강화(피드백)로 사회학습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학습이론은 각 개인의 외부환경과 강화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 한다고 본다(Bandura, 1977).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주변 사람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례로부터 태도를 모방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신적 개념화, 자신의 목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자기인식이 강화에 의한 보상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직접적 강화뿐만 아니라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Bandura, 1986).

관찰학습은 모델링 또는 대리학습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행동이 개인이 지각한 자기효능감과 환경에 대한 관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찰학습은 학습의 주체인 관찰자 스스로가 사회적 본보기 인물의 행동을 주목하고 부호화하여 연습하며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Bandura, 1977). 관찰학습은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한 기준과 부합될 때에는 보상하고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은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외적 힘과 유인뿐 아니라 스스로 정한 기준이나 목표나 자기평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Bandura, 1986).

관찰학습은 인간의 외현적인 행동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는 달리 학습에 있어서의 인지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 4단계로 구분된다(Bandura, 1986).

첫 번째는 모델을 주의집중 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학습을 보장할 수 없고 각각의 모델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Bandura, 1986). 두 번째, 모델의 행동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파지단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델의 행동을 시각적 또는 언어적인 형태의 상징적인 부호로 저장하는 방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Bandura,

1986).

세 번째, 모방하려고 하는 행동을 실제 실행에 옮겨봄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재생단계가 있다. 재생은 많은 연습이 이루어질 때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여 모델의 행동을 재생할 수 있도록 교정적 피드백이 필요한 단계이다(Bandura, 1986). 네 번째, 마지막 동기유발단계는 모델의 행동을 습득하고, 기억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유인가나 동기가 없으면 행동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강화를 통해서 행동의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이다(Bandura, 1986). 즉, 마지막 단계는 리더가 추종자로 하여금 주의, 기억, 행동화 하여 그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동기 부여 하는 것이다(Sims, Lorenzi, 1992).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행동적 전략을 도출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적 전략은 목표한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한 바를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후 건설적 사고전략이 제시되었다(Manz, 1986).

(2) 내적동기화 이론

동기에 대한 연구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의 라틴어 의미인 Movere에서 유래되어 인간 행동의 근원적 힘으로 이해되어지고 동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며 행동에 대한 발생과 유지를 지속하게 해주는 행동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주는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기를 연구한 초창기의 학자들은 개인의 동기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를 합친 것이라고 전제하고 두 동기적 측면이 모두 높을 때 개인의 동기가 가장 높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적보상을 제공하면 그 활동에 대한 내적동기가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외적보상의 통제적 측면 때문이며, 이러한 내, 외적 동기가 정서, 인지, 행동에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 온다고 밝혔다(Deci, Ryan, 1985). 최근에는 인지평가이론을 근간으로 한 단일차원의 내적동기 연구보다는 동기를 세분화하여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의 연구들이 스포

츠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자결성 이론을 기초로 개인의 동기유형이 활동의 동기적 반응 및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Deci, Ryan, 1985).

자결성 이론을 기초로 하여 동기를 결정하는 상황적 요인이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등과 같은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은 다시 개인의 동기와 상호작용하여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자기결정적 동기에서 내적동기는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외적동기와 무동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한다(Vallerand, 1997).

내적 동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을 지배하려는 적극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상황을 더 선호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Deci, Ryan, 1985). 내적인 보상은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일을 수행하면 즐거움이라는 내재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활동이나 일을 수행할 경우,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얻는 활동이나 일 자체(Deci, Ryan, 1985)를 말한다. 이러한 내적 보상을 자연적 보상(natural reward)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껴질 때 내재적 보상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통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으로 즉,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잠재적인 동기는 일 자체에 내재 되어 있는 자연적 보상인 것이다(Manz, Sims, 2001).

즐거운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 하며, 최소한 자기가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느낌만이라도 갖고 싶어 하며, 이는 자신이 유능하다고 하는 느낌과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느낌이 함께 어우러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에 필요한 노력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Manz, Sims, 2001).

내재적 보상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는 느낌이다. 자신의 능력과 자율통제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 경우에도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자연보상이 이루어지는 활동의 주요특징으로는 유능감, 자기통제감, 목적감이 있다 (Manz, Sims, 2001).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 수행하는 활동에서 유능감(competence)을 얻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관심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열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유능감을 얻고 그 대화 자체가 자연보상이 된다 (Manz, Sims, 2001). 때로는 일을 할 때 일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유능감을 느끼게 되는데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활동할때 자기통제감을 느끼게 된다(Manz, Sims, 2001). 즉, 사람에게는 대부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은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활동은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Manz, Sims, 2001). 따라서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은 유능감과 자기통제감을 높여준다(Manz, Sims, 2001).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느낄 때 목적감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능력감과 자기통제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그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적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Manz, Sims, 2001). 온전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활동에서 진정한 목적과 삶에서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감을 갖게 하는 예로는 이타주의가 있다(Manz & Sims, 2001).

B. 진로관련 변인

1. 진로장벽과 진로성숙

진로성숙은 진로발달이나 직업발달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학자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Super에 의하면 진로성숙은 자신과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역할을 탐색, 계획, 결정, 수정을 반복하면서 진로에 관한 의식과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자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를 의미한다(Super, 1955).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하여 이 둘을 현명하게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의 정도로 보았다(이자형, 2015). 국내 연구는 진로성숙을 진로를 의식하고 탐색하며 결정해가는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써,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가는 준비의 정도로 이해하였다(김현옥, 1989). 혹은 자아 및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보기도 했다(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종합하자면 진로성숙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업 선택과 의사결정 능력의 통합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김성아, 2012),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을 개인 스스로의 진로 탐색과 계획 과정에서 환경, 자신,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추구하고자 하는 준비 수준으로 본다.

개인의 특성이나 심리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지능,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개념, 직업가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자아분화, 학업적 자기효능감, 내외통제성 등이 있다. 환경적 변인으로는 지역별 차이와 사회적지지(대상에 대한 중요한 타자들의 직·간접적 지지 또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지지)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관련 변인, 진로

및 학교 관련 변인, 친구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등을 진로성숙과 연관 지어 설명해왔다(정미나, 노자은, 2016).

진로관련 변인들 중 특히 진로장벽은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손은령, 2001). 진로장벽의 개념은 Crities(1969)가 진로발달과정을 방해하고 직장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장벽(barrier) 또는 지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으로 명명한 경우도 있는데(Luzzo, 1997), 연구들이 축적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이후 최근에는 진로장벽이란 용어로 통칭되고 있다(손은령, 2004).

국내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취업, 진학, 직업생활, 직업전환 등의 경험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맥락적 변인으로 이해되며, 개인의 진로선택과 목표포부·동기 등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고복순, 김영혜, 2011; 김경화, 2011; 김진주, 권현용, 2015; 박은주, 금명자, 2012; 박지현, 황미영, 2017; 박한샘, 2008; 백연옥, 심혜숙, 2015; 양미진, 허자영, 채민정, 김경민, 2010). 진로장벽은 개인적인 진로와 관련된 포괄적 의미의 모든 장벽들을 의미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의존하므로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복순, 김영혜, 2011).

기존 연구들은 진로장벽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보았다(손은령, 2004; Crites, 1969). 내적 요인은 진로직업 정보 부족, 준비 부족, 자신감 부족, 낮은 동기화 등의 개인 심리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외적 요인은 성인종차별, 역할갈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진로에 대한 인식 차이, 진로 지지 부족 등), 연령으로 인한 제약, 노동시장의 제약 등과 같이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발견되는 환경적·맥락적 요인과 관련되어지며 이와 달리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외적 장벽만을 진로장벽으로 규정한다(이정애, 2009).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진로장벽을 진로장벽의 내적 장벽이 아닌 외적 장벽만을 측정하는 검사문항들은 사용하여 가정사회 방해, 재정적 제약, 도구적 장벽, 지역 및 성차

별 요인들을 측정한다(Lent 등, 2001).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중 특히 외적 진로장벽에 주목하여 Lent 등(200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된 학력 자체가 진로장벽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차별과 선입견 그리고 학교를 떠나게 만든 요인들 중 외적 요인들(학교에 대한 불만족, 교과 공부에 대한 흥미부족, 생계부담 등)이 진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지현, 황미영, 2017).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부족하고(조아미 등, 2014; 최지연, 김현철, 2016),

학교를 그만둠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므로(최인재, 2016) 이들이 지각하는 외적 진로장벽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진로 추구를 어렵게 하는 변인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것에 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초기 진로장벽 변인은 주로 여성의 능력과 성취사이의 간격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며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점차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과정에서 개인의 흥미 및 동기, 목표선정과정 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었다(손은령, 2004).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진로발달과정에서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진로장벽을 겪는 다양한 대상들이 주목받게 되었다(이상희, 2005). 그러나 여전히 여성과 특정 학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며, 이 외에 일부 장애인, 새터민,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남자 고등학생이나 여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로는 이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연구(박지현, 황미영, 2017), 그리고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해 질적으로 연구한 연구가 있다(김지혜, 2008). 학교 밖 청소년은 성별과 학교중단시기에 따라 진로장벽 인식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은 자아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진로준비행동은 자아정체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황미영 2017). 김지혜(2008)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지적 차원의 진로장벽(시간에 대한 어려움, 정보 수집에 대한 어려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어려움)과 정서적 차원의 진로장벽(목적의식 부족, 자신감 부족, 정서적 지지 부족)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김지혜, 2008).

진로장벽은 개념 그대로 진로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진로장벽은 진로를 인식, 계획, 결정하는 의식적 과정(진로장벽을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수준, 진로의식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강유선, 조은애, 김양희, 2011; 고복순, 김영혜, 2011; 김수진, 2010; 김종운, 박성실, 2011; 박은주, 금명자, 2012; 손경옥, 2011; 유채은, 조규판, 2012; 이현림, 김순미, 2007). 또한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며(강원덕, 안귀여루, 2010; 김민정, 2016; 김종운, 박성실, 2011; 유수복, 2017; 전주연, 송병국, 2014; 차아름, 이희경, 2014), 진로를 추구하는 태도에도 부적 영향을 준다(박은주, 금명자, 2012; 백연옥, 심혜숙, 2015; 주영주, 홍유나, 2016).

진로장벽의 하위변인들(사회 또는 가족의 영향, 재정적 제약, 도구적 장벽, 성차별)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Lent 등, 2001).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부모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진로결정에 부모의 권유나 친구의 조언이 크게 작용하는 등 진로성숙에 있어서 가족 또는 사회의 영향이 크다(전화숙 외, 2016). 경제적 불안정 또한 청소년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 진로성숙을 변화 또는 포기 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청소년의 주변에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부재한 것도 진로성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김지혜, 2007), 성차별 또한 진로성숙에 부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손은령, 2002; 이현림, 김순미, 2007).

결국 진로장벽의 하위 변인들은 그 자체로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은 부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진로장벽이 진로발달과 부적 상관관계임을 드러낸 연구처럼,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성숙의 의식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송병국, 전주연, 2013). 즉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해 탐색하거나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 큰 어려움을 느끼고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도 소극적이어서 진로성숙이 저해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2. 진로활동과 진로성숙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일련의 체험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문성호, 문호영, 2010), 그 중 청소년 진로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및 직업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문성호 외, 2016). 즉 청소년 진로활동은 청소년이 자기이해, 진로결정, 직업선택 역량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험하는 다양한 진로 및 직업관련 활동을 의미한다(문성호 외, 2016). 청소년의 활동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이들이 참여하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가 다수인 가운데, 청소년의 진로활동에 집중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문성호 외, 2016).

진로활동의 유형은 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분류되며, 진로활동을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교과수업, 진로직업특강, 현장견학, 학교 및 학과 견학, 박람회 및 진로관련 전시회 견학, 현장직업체험, 진로 및 경제캠프, 모의창업활동, 사회생활 기술활동, 학교 내 진로탐색 동아리, 청소년시설 내 진로활동 동아리, 비즈쿨로 구분한다(문성호 외, 2016). 임희진 등(2014)은 진로 체험유형을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일터/직업관련 홍보관/기업체 견학,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실습/견학, 진로캠프(진로심리검사,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직업인 초청 강연, 직업인 인터뷰 및 멘토링(상담),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

로체험, 직업모의체험,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분류하였다(임희진 등, 2014). 최근 발표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최창욱 외, 2016)에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참여 경험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았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참여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창욱 외, 2016).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진로활동에의 참여가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최창욱 등(2016)은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내용의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진로 성숙도와 정적인 관계임을 드러내었다. 이는 다양한 진로활동을 경험할수록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발견된 이전 두 차례의 실태조사(임희진 외, 2014; 최창욱 외, 2015)와 이외 선행연구들(김영식, 이기정, 2016; 이한나 외, 200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에서는 진로체험활동이 진로성숙 중에서도 특히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 향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혔고(임희진 등, 2014), 최창욱 등(2015)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성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냈다.

진로활동 경험은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와 직업을 준비하는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 허균(2010)은 중단연구를 통해 중2 때의 진로경험이 고1 때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고, 고1 때의 진로경험이 고3 때의 진로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진로활동 참여가 단기간에 진로태도성숙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시사한다(허균, 2010). 즉 지속적인 진로활동 참여는 청소년기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최은희, 2015). 특히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은희(2015)의 연구결과는 진로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질적 측면이 진로성숙과 관련 있음을 함의한다(최은희, 2015). 결국 평생의 과

업인 진로성숙 과정에 진로활동 참여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진로활동 참여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하였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로 한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에 선수등록을 한 고등학생 농구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300명의 선수들을 무선표집하여 설문응답 방법을 통해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운동기간(년)		
	남성	여성	1~3	3~5	5이상
1학년	126	35	7	119	35
2학년	71	22	13	62	18
3학년	32	14	2	36	8

B. 조사도구

1.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의 척도는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RSLQ를 신용국, 김명소, 한영석(2009)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의 연구와 최근 김솔, 정기한(2014)의 셀프리더십 연구의 요인들을 살펴보니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관찰, 자기단서, 자기차별, 자연적 보상,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분석의 9개 세부요인이 있었으나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총 14문항이며 척도는 5단계척도(5-Liket scale)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목표설정, 자연적보상,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3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문항수는 자기목표설정 5문항, 자연적 보상 5문항, 성공적인 수행 4문항이다. 셀프리더십의 기준이 대상자 본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간관리자(주장)라는 본인이 아닌 다른 대상자에 대한 설문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셀프리더십 구성내용 및 문항 수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셀프리더십	목표설정	5문항
	자연적 보상	5문항
	성공 수행 상상	4문항

2. 진로관련변인

1) 진로장벽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는 다양하며 청소년 대상으로는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황매향 외, 2005a; 황매향 외, 2005b)가 많이 이용된다. 이런 내용중 노지혜(2018)는 이정애(2009)의 선행 연구 사례를 토대로 13문항만을 사용하여 진로장벽 변인에 대해 정의하여 이와 유사한 문항으로 하여 <표 3>의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일부 수정하였다.

<표 3> 진로장벽 구성내용 및 문항 수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진로장벽	가정사회 방해	6문항
	재정적 제약	3문항
	도구적 장벽	4문항

2) 진로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노지혜(2018), 임희진 등(2014)이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여 <표 4>와 같이 정의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표 4> 진로활동 태도 및 인식 측정문항

번호	구분
1	모든 진로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2	진로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3	진로활동을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4	더 많은 진로활동을 하고 싶다
5	다시 해보고 싶은 진로활동이 있다
6	진로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7	진로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8	진로활동 때문에 생활이 즐겁다
9	진로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10	진로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진로성숙

진로성숙은 다양한 하위영역들로 구성되며, 계획성,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타협성, 진로관심, 진로효능감 등을 통해 측정된다. 진로성숙 측정도구들은 구체적으로 진로성숙 변인을 알아보기에는 유용하나, 대부분 70여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수가 많으면 설문이 길어져 응답에 불성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2006)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 하위변인(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인지식, 진로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와 질문의 내용이 관계 없다 판단되어진 2문항을 제외하고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5>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이 그 하위변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을 진로성숙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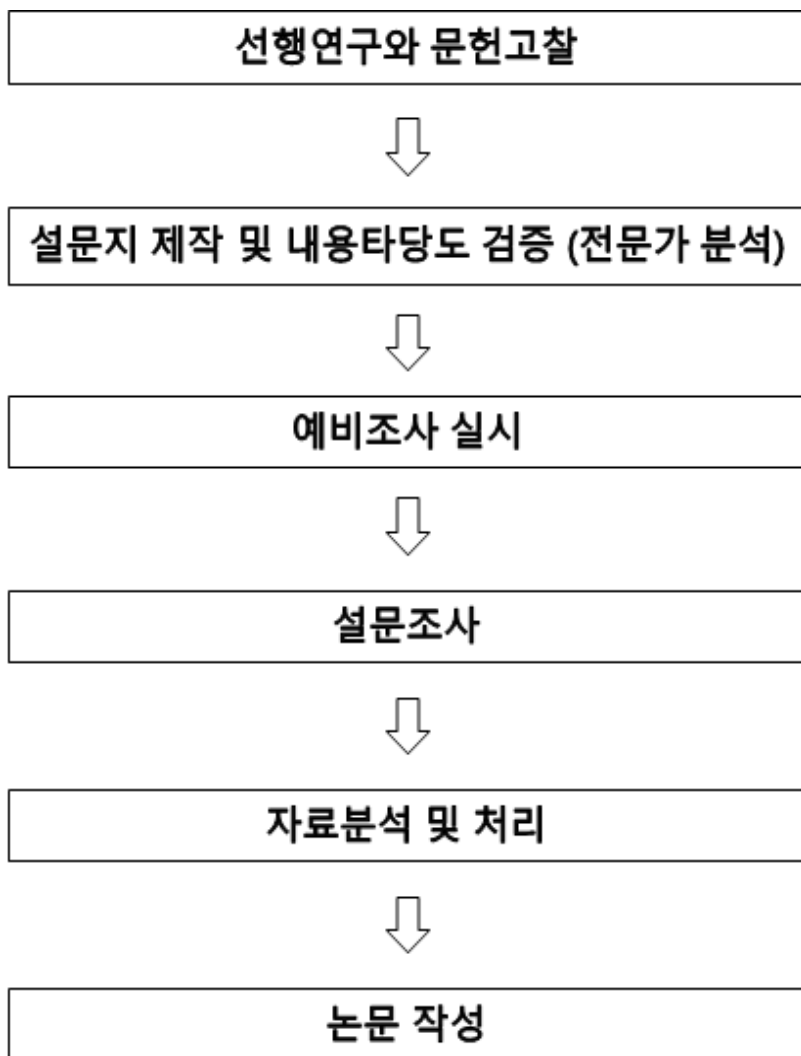
<표 5> 진로성숙 구성내용 및 문항 수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진로성숙	계획성	5문항
	독립성	5문항
	태도	3문항
	자신지식	6문항
	진로행동	6문항

C. 연구절차

본 연구는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제작된 설문지는 스포츠 심리학 박사 2인의 전문가에게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의 난이도를 검토 및 논의하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보완된 설문지는 G광역시 소재한 고등학교 10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제작된 문항들은 선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2018년 한국중고등학교 농구연맹 주관의 대회인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와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별 대회기간 중 시합을 위해 운동에 참여한 고등학교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직접 배부 및 회수하였다. 회수되어진 설문에 대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적합한 통계절차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그림 1>의 내용으로 진행 하였다.



<그림 1> 연구 절차

D. 조사도구의 타당도

1. 셀프리더십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에 관한 요인별 구분은 <표 6>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셀프리더십은 목표설정, 자연적보상, 성공수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결과로서 KMO 측도가 .774,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이 5338.292(.000)으로 각 요인간의 상관성이 증명됨을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목표설정 .957, 자연적보상은 .948, 성공수행은 .893으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셀프리더십의 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목표설정	자연적보상	성공수행	공통성	Cronbach's α
셀프2	.911	.254	.201	.936	.957
셀프1	.900	.240	.192	.905	
셀프4	.889	.138	.202	.851	
셀프3	.874	.263	.182	.867	
셀프5	.837	.216	.039	.749	
셀프7	.199	.940	.073	.929	.948
셀프8	.231	.907	.112	.889	
셀프6	.163	.849	.146	.769	
셀프10	.213	.845	.207	.802	
셀프9	.273	.844	.091	.796	
셀프13	.148	.064	.930	.891	.893
셀프14	.141	.041	.884	.803	
셀프12	.172	.159	.858	.790	
셀프11	.150	.254	.730	.621	
고유값	4.231	4.207	3.158		
분산(%)	30.221	30.047	60.268		
누적(%)	30.221	60.268	82.827		

KMO=.774, $\chi^2=5338.292$, df=91, sig=.000

2. 진로관련 변인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1) 진로장벽

진로장벽에 관한 요인별 구분은 <표 7>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진로장벽은 가정사회방해, 재정적 제약, 도구적 장벽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진로장벽 11번 문항은 적합성 검정지수가 일반적 지수인 .05이하로 나타나서 제외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로서 KMO 측도가 .841,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이 8213.369(.000)으로 각 요인간의 상관성이 증명됨을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가정 사회방해 .970, 재정적 제약은 .835, 도구적 장벽은 .955으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진로장벽에 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가정사회 방해	재정적 제약	도구적 장벽	공통성	Cronbach's α
진로장벽5	.920	.216	.044	.894	.970
진로장벽4	.915	.220	.101	.896	
진로장벽3	.895	.281	.140	.900	
진로장벽13	.889	.169	.087	.825	
진로장벽10	.854	.382	-.098	.886	
진로장벽6	.842	.450	-.061	.915	
진로장벽12	.783	.025	.353	.738	
진로장벽9	.774	.510	-.094	.868	.835
진로장벽7	.194	.894	.175	.868	
진로장벽8	.428	.828	-.027	.869	
진로장벽1	.057	.033	.958	.922	.955
진로장벽2	.096	.054	.952	.919	
고유값	3.214	2.825	2.564		
분산(%)	21.427	18.833	17.095		
누적(%)	21.427	40.260	57.356		
KMO=.841, $\chi^2=8213.369$, df=78, sig=.000					

2) 진로성숙

진로장벽에 관한 요인별 구분은 <표 8>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진로장벽은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진로장벽 11번 문항은 적합성 검정지수가 일반적 지수인 .05이하로 나타나서 제외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로서 KMO 측도가 .598,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이 16243.091(.000)으로 각 요인간의 상관성이 증명됨을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다음과 같다.

<표 8> 진로성숙에 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 지식	진로 행동	공통성	Cron - bach's α
진로성숙2	.951	.160	.129	.165	.075	.986	.992
진로성숙1	.948	.161	.133	.168	.077	.984	
진로성숙3	.947	.166	.138	.176	.079	.988	
진로성숙4	.947	.156	.132	.171	.084	.979	
진로성숙5	.899	.176	.063	.216	.064	.893	
진로성숙7	.134	.924	-.035	.116	.122	.908	.947
진로성숙6	.181	.904	.224	.081	-.146	.939	
진로성숙9	.032	.888	.004	.112	.283	.884	
진로성숙8	.137	.805	.022	.008	.380	.866	
진로성숙10	.278	.772	.008	-.037	.457	.908	
진로성숙25	.053	-.020	.905	.063	.188	.872	.921
진로성숙23	.134	.090	.888	-.084	.188	.881	
진로성숙24	.146	-.080	.876	.151	.212	.865	
진로성숙13	.203	.142	.806	.047	-.213	.885	
진로성숙12	.065	.198	.735	.017	-.218	.926	
진로성숙17	.180	.260	.148	.887	.126	.925	.935
진로성숙16	.551	-.121	-.003	.790	.027	.945	
진로성숙18	.112	.346	-.019	.772	.396	.927	
진로성숙15	.624	-.109	.065	.735	.032	.947	
진로성숙14	.631	-.114	.072	.717	.026	.933	
진로성숙19	.136	.217	-.027	.638	.587	.838	.881
진로성숙21	.092	.414	.095	.167	.833	.911	
진로성숙20	.118	.494	.111	.224	.793	.954	
진로성숙22	.068	.031	.344	.133	.724	.841	
고유값	5.853	4.629	3.917	3.804	3.156		
분산(%)	23.412	18.514	15.670	15.217	12.622		
누적(%)	23.412	41.927	57.597	72.814	85.436		
KMO=.598, $\chi^2=16243.091$, df=300, sig=.000							

E. 자료처리

본 연구의 설문 응답을 검정하기 위하여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별 조사도구의 신뢰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 s α 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집단의 특성(성별, 운동기간,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을 비롯한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를 판단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ANOVA를 실시하며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진로관련에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의 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는 고등학생 농구선수의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변인(진로장벽, 진로활동,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A.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관련 변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표 9>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결과

변인	성별	N	M±SD	t
목표설정	남자	229	3.92±.47	-.824
	여자	71	3.98±.46	
자연적 보상	남자	229	4.19±.60	-.408
	여자	71	4.22±.67	
성공수행	남자	229	3.90±.61	-.309
	여자	71	3.92±.56	

* $p < .05$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차이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요인인 목표설정, 자연적보상, 성공수행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에서는 남자(3.92±.47)이 여자(3.98±.46)으로 여자 선수들이 남자보다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연적 보상에서는 남자(4.19±.60)이 여자(4.22±.67)으로 여자 선수들이 남자보다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공수행 에서는 남자(3.90±.61)이 여자(3.92±.56)으로 여자 선수들이 남자보다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 운동기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결과

변인	기간	N	M±SD	t
목표설정	3~5년	116	3.89±.44	-1.422
	5년이상	184	3.97±.48	
자연적 보상	3~5년	116	4.15±.63	-.965
	5년이상	184	4.23±.61	
성공수행	3~5년	116	3.85±.05	-1.064
	5년이상	184	3.93±.60	

* $p < .05$

운동기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운동기간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요인인 목표설정, 자연적보상, 성공수행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에서는 3~5년이하(3.89±.44)이 5년이상(3.97±.48)으로 5년이상 운동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연적 보상에서는 3~5년이하(4.15±.63)이 5년이상(4.23±.61)으로 5년이상 운동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공수행에서는 3~5년이하(3.85±.05)이 5년이상(3.93±.60)으로 5년이상 운동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결과

변인	학년	N	M±SD	F
목표설정	1학년	74	3.90±.48	1.028
	2학년	126	3.98±.47	
	3학년	100	3.91±.46	
자연적 보상	1학년	74	4.17±.66	.111
	2학년	126	4.21±.60	
	3학년	100	4.20±.61	
성공수행	1학년	74	3.87±.60	.348
	2학년	126	3.94±.61	
	3학년	100	3.89±.59	

* $p < .05$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요인인 목표설정, 자연적보상, 성공수행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에서는 1학년(3.90±.48), 2학년(3.98±.47), 3학년(3.91±.46)으로 2학년이 평균의 차이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적 보상에서는 1학년(4.17±.66), 2학년(4.21±.60), 3학년(4.20±.61)으로 2학년이 평균의 차이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공수행에서는 1학년(3.87±.60), 2학년(3.94±.61), 3학년(3.89±.59)으로 2학년이 평균의 차이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

<표 12> 성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 결과

변인		성별	M±SD	t
진로 장벽 남자(n=229) 여자(n=71)	가정사회 방해	남자	4.10±.48	-1.880
		여자	4.22±.45	
	재정적 제약	남자	4.20±.65	-1.834
		여자	4.36±.65	
도구적 장벽	남자	4.07±.57	-2.135*	
	여자	4.23±.54		
진로성숙 남자(n=229) 여자(n=71)	계획성	남자	4.04±.57	.009
		여자	4.03±.61	
	독립성	남자	4.37±.60	-.103
		여자	4.38±.63	
	태도	남자	3.81±.61	-.445
		여자	3.85±.64	
자신지식	남자	3.95±.63	.298	
	여자	3.92±.68		
진로행동	남자	4.03±.63	-.873	
	여자	4.11±.63		
진로활동		남자	3.79±.41	-.967
남자(n=229) 여자(n=71)		여자	3.85±.48	

* $p < .05$

성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 진로성숙, 진로활동의 하위요인의 평균적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진로장벽의 도구적 장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진로장벽의 가정사회 방해는 남자(4.10±.48)이 여자(4.22±.45)로 재정적 제약은 남자(4.20±.65)이 여자(4.36±.65)로 여자 선수들이 남자보다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구적 장벽에서에서는 평균적 차이와 함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성숙의 계획성, 자신지식은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보다 평균적 차이가 높으며, 독립성, 태도, 진로행동은 여자 선수들이 남자보다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활동에서는 여자선수들이 남자선수보다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운동기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 결과

변인		운동기간	M±SD	t
진로 장벽 3~5년(n=116) 5년이상(n=184)	가정사회 방해	3~5년	4.10±.53	-.805
		5년이상	4.15±.44	
	재정적 제약	3~5년	4.25±.63	.264
		5년이상	4.23±.67	
도구적 장벽	3~5년	4.04±.60	-1.586	
	5년이상	4.15±.54		
진로성숙 3~5년(n=116) 5년이상(n=184)	계획성	3~5년	4.05±.58	.316
		5년이상	4.03±.58	
	독립성	3~5년	4.35±.60	-.579
		5년이상	4.39±.61	
	태도	3~5년	3.83±.65	.178
		5년이상	3.81±.60	
	자신지식	3~5년	4.03±.58	1.733
		5년이상	3.89±.67	
진로행동	3~5년	4.12±.62	1.550	
	5년이상	4.01±.62		
진로활동		3~5년	3.83±.43	.918
3~5년(n=116) 5년이상(n=184)		5년이상	3.78±.43	

* $p < .05$

운동기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운동기간에 따라 진로장벽, 진로성숙, 진로활동의 하위요인의 평균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진로장벽의 가정사회 방해, 도구정 장벽은 5년이상 운동을 한 선수들이 5년미만의 운동선수보다 평균적 차이가 높았으며 재정적 제약은 5년 미만 운동선수들이 평균적 차이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성숙의 계획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은 5년미만 선수들이 5년이상 선수들보다 평균적 차이가 높으며, 독립성은 5년이상 선수들이 5년미만 선수들보다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활동에서는 5년미만 선수들이 5년이상 선수보다 평균의 차이로는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대한 차이는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진로장벽, 진로성숙, 진로활동의 하위요인의 평균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진로장벽의 가정사회 방해요인은 3학년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재정적 제약, 도구장 장벽은 1학년이 평균적으로 높았으며 도구정 장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의 계획성은 3학년이 독립성, 진로행동은 1학년이 태도, 자신지식은 2학년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활동에서는 3학년이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학년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의 차이 결과

변인	학년	M±SD	F (사후검정)			
진로 장벽	가정사회 방해	1	4.16±.56			
		2	4.08±.43	1.222		
		3	4.17±.46			
	재정적 제약	1	4.37±.65		2.855	
		2	4.14±.66			
		3	4.26±.64			
		도구적 장벽	1	4.20±.55		3.778*
			2	4.00±.59		
			3	4.18±.53		
진로성숙	계획성	1	3.98±.50	.539		
		2	4.03±.57			
		3	4.08±.65			
	독립성	1	4.42±.61	.566		
		2	4.39±.62			
		3	4.32±.61			
	태도	1	3.77±.63	1.880		
		2	3.90±.62			
		3	3.76±.61			
		자신지식	1		3.89±.63	.349
			2		3.97±.63	
			3		3.95±.66	
	진로행동	1	4.14±.60	2.432		
		2	4.08±.64			
		3	3.94±.61			
진로활동	1	3.79±.43	.307			
1학년(n=74), 2학년(n=126),	2	3.79±.42				
3학년(n=100)	3	3.83±.45				

* $p < .05$

B.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관련 변인에 따른 상관관계

1. 셀프리더십, 진로관련변인(진로장벽, 진로성숙, 진로활동)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 자연적보상, 성공수행간의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요인들 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은 자연적 보상과 ($r=.484$ $p<.01$)과 성공수행은($r=.380$ $p<.01$)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자연적보상은 성공수행과($r=.319$ $p<.0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목표설정	자연적 보상	성공수행
목표설정	1		
자연적 보상	.484**	1	
성공수행	.380**	.319**	1

** $p<.01$

진로장벽의 가정 사회 방해, 재정적 제약, 도구적 장벽간의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요인들 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사회방해는 재정적 제약과($r=.607$ $p<.01$)과 도구적 장벽은($r=.151$ $p<.01$)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재정적 제약은 도구적 장벽과($r=.128$ $p<.0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진로장벽 상관관계

	가정 사회방해	재정적 제약	도구적 장벽
가정 사회방해	1		
재정적 제약	.607**	1	
도구적 장벽	.151**	.128**	1

** $p<.01$

진로성숙의 계획성은 독립성($r=.356$ $p<.01$), 태도($r=.284$ $p<.01$), 자신지식($r=.595$ $p<.01$), 진로행동($r=.291$ $p<.01$)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독립성은 태도($r=.169$ $p<.01$), 자신지식($r=.291$ $p<.01$), 진로행동($r=.588$ $p<.01$)의 상관관계가 태도는 자신지식($r=.172$ $p<.01$), 진로행동($r=.307$ $p<.01$)의 상관관계가 확인하고 자신지식은 진로행동($r=.471$ $p<.0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활동은 진로성숙의 자신지식($r=.127$ $p<.05$)과의 상관관계 나타났다.

<표 17> 진로성숙 및 진로활동의 상관관계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	진로활동
계획성	1					
독립성	.356**	1				
태도	.284**	.169**	1			
자신지식	.595**	.291**	.172**	1		
진로행동	.291**	.588**	.307**	.471**	1	
진로활동	.084	.015	.062	.127*	-.031	1

* $p < .05$, ** $p < .01$

C.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1.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진로장벽의 관계에 대한 영향의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이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 자연적 보상, 성공수행이 진로장벽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적합성은 $F=.146, p=.932$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8> 셀프리더십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

변인	진로장벽							
	비		표준화		t	F	R ²	adj R ²
	표준화	계수	계수	계수				
b	SE	β						
목표설정	.009	.068	.010	.139				
셀프리더십 자연적 보상	-.029	.051	-.038	-.566	.146	.001	-.009	
성공수행	-.008	.049	-.011	-.166				

* $p<.05$

2.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활동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진로활동의 관계에 대한 영향의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이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 자연적 보상, 성공수행이 진로장벽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적합성은 $F=.297, p=.828$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9> 셀프리더십이 진로활동에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

변인	진로활동							
	비		표준화		t	F	R ²	adj R ²
	표준화	계수	계수	계수				
b	SE	β						
목표설정	.019	.063	.021	.298				
셀프리더십 자연적 보상	-.036	.047	-.051	-.762	.297	.003	-.007	
성공수행	-.017	.046	-.024	-.372				

*p<.05

3.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진로활동의 관계에 대한 영향의 분석결과는 <표 20>과 같이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 자연적 보상, 성공수행이 진로장벽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적합성은 F=.426, p=.734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0> 셀프리더십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

변인	진로성숙							
	비		표준화		t	F	R ²	adj R ²
	표준화	계수	계수	계수				
b	SE	β						
목표설정	.057	.063	.063	.913				
셀프리더십 자연적 보상	-.019	.047	-.028	-.412	.426	.004	-.006	
성공수행	.017	.045	.024	.371				

*p<.05

V.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 농구선수의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함께 운동에 참여하는 동료들의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지도자의 영향에 대한 연구사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코치의 행동 유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유정애(2002)는 최고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압적이며 힘든 훈련을 강조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 의사결정 수단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은 코치의 지도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조재기(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지도유형은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유정애(2002)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권위적 지도행동은 오히려 반감을 사서 코치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가 생긴다고 하였으며 이로인해 창의적인 경기보다 복종에 길들여지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성호탁(2014)은 셀프리더십이 경기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전명규(2013)는 병상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스스로의 셀프리더십은 경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러한 경향이 대학진학을 비롯한 운동의 지속성에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의 진로관련 변인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Houghton et al.(2012)은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성실함, 외향성, 안정성 등의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Dolbier et al.(2001)은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결과에서 건강, 직무성과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고 직장인들의 건강과 직무만족 등의 직무성과 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윤선영, 백정미(2017)의 연구에서는 중간관리자는 셀프리더십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하였으며, 중간관리자의 리더

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윤선영, 백정미, 2017; 김대원, 2014; 신수영, 박원우, 2014; 이새롬, 2013; 이민호, 2011; 김정식, 2008)에 대하여서는 지지하지 않았다. 평균적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적용이 처음이며 지도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주장)라는 특성으로 인한 차이에 의해 결과적 지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기연, 김경아(2011)는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집단이 높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선행 연구의 사례들에 비해 진로관련 변인의 요인들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관련 변인들인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활동들에 대해 진로장벽의 도구적 장벽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통계학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학년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고등학교 선수로의 적응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시기에 따른 고민도 작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학년별 진로장벽 변인에서도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도구적 장벽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학년 선수들의 적응 및 출전기회 등에 대해 구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러하듯 농구 종목의 특성에 따른 여러 변인들에 대해 새롭게 조율하고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스포츠 종목의 특성과 함께 아직 미성숙한 고등학생들의 중간관리자(주장)의 역할에 대한 범위의 제한사항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농구 선수의 중간관리자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활동과 같은 진로관련 변인들에 대해 유의하게 영향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셀프리더십에 대해 선수 및 참여자 자체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아닌 농구와 같은 팀 스포츠 경기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의 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이 운동

과 경기에 대한 영향이 훈련의 재미와 기술적 훈련, 개인고민, 경기력 영향의 환경적 요소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지고 진로관련 변인들이 너무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작용되어지고 사회적 현상에서 국내를 비롯한 세계적 흐름에 대한 작용과 영향이 있는 것이 현대의 진로선택에 관한 변인들의 요인으로 연구가 되어진 선행 연구라 하여도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적 변화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양한 연구와 해석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 농구선수의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 관련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관련 변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 자연적 보상, 성공수행 상상의 요인이 성별, 운동기간, 학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평균적 차이는 발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관련 변인으로 진로장벽, 진로성숙, 진로활동을 구분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하위 요인들에 대해 성별, 운동기간, 학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진로장벽의 도구적 장벽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평균적 차이와 통계적 유의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적 차이는 발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각 요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요인별로는 $p < .0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변인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니 진로장벽, 진로활동, 진로성숙의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 농구선수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변인들 간의 평균적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중간관리자(주장)가 있는 종목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중간관리자(주장)의 역할 및 특성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경기력에 관련된 특성들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도자들에 대한 경기력과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기에 선수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중간관리자(주장)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된다면 경기력을 비롯하여 팀 응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중간관리자(주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유선, 조은애, 김양희(2011). 학업우수 고등학생이었던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17(2), 1-16.
- 강원덕, 안귀여루(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5(1), 161-175.
- 고복순, 김영혜(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2), 29-42.
- 김경화(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고등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소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191-213.
- 김대원(2014). 관료들의 혁신행동 의지 영향요인 분석-임파워링 리더의 행동과 셀프리더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 35-62.
- 김민정(2016). 초등학교 빙상종목 참가자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정(2007).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성아(2012). 작용-개인-맥락-시간 모델의 관점에서 본 초기청소년의 환경체계들과의 인지된 관계와 진로성숙도. 한국아동복지학, 38, 7-37.
- 김슬, 정기한(2014). 내부마케팅, 내부고객만족, 서비스품질, 가격, 외부고객만족간의 관계: 웨딩서비스 중심으로.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16(3), 105-124.
- 김수진(2010).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7), 41-56.
- 김영식, 이기정(2016).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과학연구, 47(4), 125-143.

- 김용진(2009). 선수계층별 배드민턴 코치의 변혁적 리더십과 팀성과에 관한 인과 관계.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원영(2008). 농구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이 선수만족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정식(2008). 리더의 코칭행위가 조직구성원들의 인지적 유연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문교,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31-48.
- 김중운, 박성실(2011).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4), 209-229.
- 김준원(2009). 유도지도자의 지도유형이 지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 김지혜(2007). 헬스로빅 운동 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체격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혜(2008). 학교에 체육시간을 허하라. 열린전북, 48-50.
- 김진주, 권현용(2015).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진로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8(1), 67-82,
- 김태훈(2016). 청소년 남자 핸드볼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의 파워 변인 비교.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현옥(1989). 청소년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남기덕(2008). 리더십 패러다임의 진화와 그 결정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22(3), 81-99.
- 남기연, 김경아(2011).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7), 85-113.
- 노지혜(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변인 분석 : 진로장벽, 진로활동, 진로성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2016). 청소년진로활동의 실태와 프로그램 분석. 청소년학연구, 23(4), 319-343.

-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백연옥, 심혜숙 (2015).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진로장벽지각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5(1), 59-74.
- 박은주, 금명자(2012).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교교육연구, 7(2), 37-55.
- 박지현, 황미영(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1-24.
- 박한샘(2008).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와의 관계:사회적지지 및 희망의 중재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0(4), 129-151.
- 성호탁(2014). 스포츠 지도자의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및 경기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경옥(2011).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12(1), 1-15.
- 손은령(2001). 진로 장벽 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충남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 28, 81-97.
- 손은령(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적·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은령(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 송병국, 전주연(2013).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농촌지도와개발, 20(1), 235-264.
- 신용국, 김명소, 한영석(2009). 셀프리더십 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타당화 연구: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6(3), 313-340.
- 신수영, 박원우(2014). 상사와 부하의 쌍(dyad) 관계에서 목표성향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43(3), 613-637.

- 양미진, 허자영, 채민정, 김경민(2010).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장벽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4), 45-73.
- 유수복(2017). 성별과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37, 253-273.
- 유정애(2002). 농구선수의 특성에 따른 코치의 지도행동 유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채은, 조규관(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143-166.
- 윤선영, 백정미(2017). 중간관리자 리더십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정관리학회*, 27(3), 29-50.
- 오준교(2018). 엘리트 농구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선수만족과 인지된 경기력과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민호(2011). 지방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상희(2005). 장애학생 지원조직 구성과 실제: 일본 츠크바(筑波)대학의 지원 사례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 103-118.
- 이새롬(2013). 셀프리더십이 조직변화몰입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승민(2014). 불링선수를 위한 수행루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탐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양구, 권형일(2015). 청소년의 방과 후 스포츠클럽대회 활동 정도에 따른 참여만족도 및 학습성과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0, 489-498.
- 이영광, 김민수, 김민주(2014).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변화·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57-179.
- 이왕성(2008). 고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자형(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중단적분석.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이정애(2009).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직업획득 가능성이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2009).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신뢰 및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129-148.
- 이혁기(2011). 미국 지역대학 스포츠공간에서의 장소경험, 장소이미지, 장소성, 지역공동체 간의 가설적 인과모형. 한국체육학회지, 50(5), 81-92.
- 이현림, 김순미(2007). 여고생이 지각하는 진학장벽과 진로신화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3), 55-71.
- 이화음(2016)**. 자유학기제의 체육계열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 탐색. 석사학위논문, 인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희진, 송병국, 안지선(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규필, 황순길, 김명찬(201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3(2), 61-85.
- 조아미, 이진숙(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한국청소년학회, 21(7), 145-170.
- 조재기(199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건강 체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주영주, 홍유나(2016).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35(2), 35-57.
- 전주연, 송병국(2014).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21(3), 171-200.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우리나라 공업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현안 문제

- 와 과제. 대한공업교육학회, 16(1), 173-180.
- 정미나, 노자은(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일재(1997). 성경적 목회 리더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전명규(2013). 병상선수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자신감 및 경기력 관련성.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5(2), 41-51.
- 전화숙, 임혜정, 이기혜(2016). 서울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6(4), 97-124.
- 차아름, 이희경(2014).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5(1), 343-358.
- 최성애(2011). 스포츠지도자의 슈퍼리더십이 선수들의 셀프리더십과 개인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5(1), 157-169.
- 최은희(2015).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 학회 논문지, 15(5), 307-316.
- 최인재(2016).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 여성가족부, 휴먼컬처아리랑(일반단행본).
- 최지연, 김현철(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3(3), 103-132.
-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이효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균(2010).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진로경험활동과 진로성숙도의 종단관계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157-170.
- 한국고용정보원(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a).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2005b). 진로 상담 :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3.
- Anderson & Prussia(1997). The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Preliminary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The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4, 119-143.
- Bandur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1977).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Crites(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Deci & Ryan(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olbier, C. L., Soderstrom, M., & Steinhardt, M. A.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enhanced psychological, health, and work outcomes. Journal of Psychology, 135(5), 169-485.
- Houghton & Neck(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 Testing a hierarchical fact 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Houghton, J. D., David Dawley & Trudy C. DiLiello.(2012). The 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ASQL): A More Concise Measure of Self-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7(2), 216-232.

- Kerr & Jermier(1978). Substitutes for Leadership: Their Meaning and Measur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2, 375-403
- Latham(1982).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Goal Difficulty on Performance. *Personnel psychology*, 35(3).
- Lent(2001). Learning Procedural Knowledge through Observatio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 1.
- Luzzo(1997). Evaluating Career Decision-Making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38(2).
- Manz & Sims(1984). Leadership and Reciprocal Determinism. *Journal of Sport Psychology*, (6)4 370-372.
- Manz(1986). Self-leadership :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585-600.
- Manz & Sims(1989).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anz & Sims(2001). *New Super leadership :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rrett-Koehler, SanFrancisco, CA.
- Minzberg, Henry.(1992). *Structure in Fives: Designing Effective Organization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Neck& Houghton(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 270-295.
- Neck, Stewart & Manz(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 278-302.

Sims & Lorenzi(1992). *The New Leadership Paradigm: Social Learning and Cognition in Organizations*, Sage Publications, Inc.

Super(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Vallerand(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1-360.

고등학생 농구선수 중간관리자(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고등학생 농구선수 주장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엄격히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에 제시된 응답요령을 자세히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자 : 김 태 훈 (skykthhd@naver.com)

지도교수 : 윤 오 남

문항체크는 숫자위에 [√] 표시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운동참여 기간은?

- ① 1년이상 ~ 3년미만 ② 3년이상 ~ 5년미만 ③ 5년이상

3. 본인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셀프리더십

문항체크는 숫자위에 (√) 표시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주장은 경기나 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주장은 세워둔 목표를 염두해 두면서 경기나 훈련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장은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장은 단기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 목표에 대해 생각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주장은 좋은 결과를 위해 구체적 목표에 대해 세분화 하여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주장은 훈련이나 경기와 관련 불만족스러운 측면보다는 즐겁고 좋았던 측면의 생각들을 더 많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주장은 옳은 행동이나 도움이 되는 훈련이나 도움이 되는 상황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주장은 경기결과뿐 아니라 훈련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주장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생각하고 찾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장은 어떤 훈련에 대해서도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함께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중요 훈련에 대해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주장은 어려운 훈련이나 경기에 대해 수행하기 전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주장은 실제 훈련이나 경기에서도 성공 수행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주장은 어려운 도전이나 훈련이 발생되면 잘 극복(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진로장벽

문항체크는 숫자위에 (√) 표시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진로를 준비하려면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원하는 진로 분야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걱정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들은 내가 선택한 진로에 응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 또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진로에 격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선택한 진로와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 내게 원하는 진로가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부담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나 경력을 쌓기가 돈 때문에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걱정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훈련 외에 할 일이 많아서 내 꿈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주변에 조언을 구할 어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고 할 때 주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진로성숙

분항체크는 숫자위에 [√] 표시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3	돈을 많이 벌 수 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체크는 숫자위에 (√) 표시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4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관심 있는 진로(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관심을 갖는 진로(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알고 있는 진로지식이 정확한지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진로활동

문항체크는 숫자위에 (√) 표시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참여 및 만족의 정도에 대한 체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모든 진로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활동을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4	더 많은 진로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시 해보고 싶은 진로활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7	진로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활동 때문에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진로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진로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선수여러분들의 안전과 경기에서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